

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/구연 논문분야 종양

논문제목 사지 골육종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 후 향후 전이 발생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등급 평가 체계

영문제목 **A Novel Grading system Predicting The Chances Of Developing Metastasis Immediately After definitive Surgery In Appendicular Osteosarcoma**

발표자 김지섭 책임저자 신규호

저자 김승현, 조용진, 노재경*, 서진석**, 양우익***, 신규호, 김지섭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, 암센터*, 영상의학 교실**, 병리학 교실***

기관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, 암센터*, 영상의학 교실**, 병리학 교실***

서론 : 골육종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전이 발생 여부는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이나, 아직 전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. 본 연구는 사지 골육종 환자의 치료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 후 향후 전이 발생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등급 평가 체계를 고안하는 것이다.

재료 및 방법 : 골육종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전이 발생 여부는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이나, 아직 전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. 본 연구는 사지 골육종 환자의 치료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 후 향후 전이 발생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등급 평가 체계를 고안하는 것이다.

결과 : 113명의 환자에 대해서 통계적 분석을 이용하여 전이와 연관이 있는 인자들을 확인하였으며, 그 결과 병변의 발생 위치 ($p=0.00$), 조직학적 분류 ($p=0.02$), Huvos등급 ($p=0.02$)이 전이 발생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새로운 등급 체계 고안에 이용되었다. 새로운 등급 체계는 상기 각 항목의 아류 항목들에 대하여 전이 발생에 대한 각각의 비교 위험도를 구하고, 비교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배점을 부여하여, 각 아류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고안 되었다 (최저 점수=20, 최대 점수=70). 71명의 환자에 대하여 상기 등급 체계를 적용하였다. 전체 환자의 합산 총점의 평균은 43.4였으며, 전이 발생 환자군의 합산 총점의 평균은 49.8, 전이 미발생 환자군의 합산 총점의 평균은 39.8 이었다 ($p=0.00$). 합산 총점을 기준으로 산포도를 그려 분석한 결과 합산 총점 45를 유용한 절단값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. 합산 총점이 45 이하인 환자군에서의 ($n=44$) 평균 전이 발생율은 13.6% 이었으며, 합산 총점이 45 초과인 환자군에서의 ($n=27$) 평균 전이 발생율은 70.33% 이었다($p=0.00$).

결론 : 사지 골육종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수술적 치료 후 상태에서 향후 환자의 전이 발생율을 고위험군과 (평균 발생율=70.33%) 저위험군(평균 발생율=13.6%)으로 분류하여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등급 평가 체계를 확립 하였다.

acknowledgment :

사지 골육종, 전이 발생율, 새로운 등급 평가 체계